

## ■ 연구원 소식

### ○ 서울지역 신년하례회 안내

- 날 짜 : 2016.01.16.(土) 오후 5시
- 장 소 : 예뵈골(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6동 4361)
- 내 용 : 2016년 새해를 맞아 수도권에 계시는 회원분을 모시고 신년하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 ○ 제4회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 강좌 안내

- 주 제 : 새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 - 내발론의 탈구축
- 강 사 : 김윤희(고려대 한국사연구소, GHS운영위원)
- 날 짜 : 2016.01.16.(土) 오후 3시
- 장 소 :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 사무국 세미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살레시오회 돈보스코센터>)

### ○ 201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송

- 날 짜 : 2016.01.06.(水)
- 내 용 : 2015년도 연구원에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개인과 단체에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1월 11일(월) : 운영위원회
- 01월 13일(수) : 정읍학술연구용역 단행본 최종 납품
- 01월 16일(토) : 연구원 정기이사회, 신년하례회, GHS 강좌

## ■ 역사속의 오늘

### ○ 박종철과 한 사람 - 1987. 1. 14

: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범인이나 용의자도 아니고 용의자의 행방을 조사받으러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가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한 대학생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된 것은 불과 30년도 안된 일이다.

이른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공안당국의 궤변은 한동안 군사정권의 비도덕성을 조롱하는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문 살해 사건을 축소, 은폐 보도하기 위해 가족 허락도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해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는 "그 언 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아니 떠남을 당했다. 박 종 철...

그의 죽음이 원천이 되어 1987년 6월 시민 항쟁으로 대한민국은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한 선배의 행방을 캐내려한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고문만으로 기억하곤 한다. 그렇다. 박종철은 누군가를 잡아들이기 위한 참고인일 뿐이었다. 경찰들이 박종철로부터 뽑아내려 했고, 박종철이 목숨으로 그를 지키려 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 박종운.

그는 박종철의 대학 선배로 1981년 대학에 입학한 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그는 이정우, 백태웅 등과 함께 81학번 서울대 민주화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이로 인해 1985년 민주화추진위 사건으로 현상 수배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종운을 잡기 위해 그가 가입했던 '대학문화연구회'의 후배인 박종철을 참고인으로 연행해 그에게 물고문을 하였다. 박종철로서는 얼마전 하숙집에 다녀간 사실은 있으나 선배 박종운

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처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비밀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참고인인 박종철에게 더욱 거세게 고문을 하였고 결국 박종철은 죽임을 당하고 만다. 박종철의 죽음으로 지켜졌던 박종운은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지구당 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한나라당의 간판 아래 들었다고 하여 박종철을 배신했다고 지레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박종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면 좀 다른 삶을 살아도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한 날도 모르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의사는 없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그가 변하기 전 죽임을 당한 박종철에게 행방을 알 수 없던 선배 박종운은 "가슴 동여맨 영혼" 이지 않았을까?

#### ○ 이원록 - 1944. 1. 16

: 책깨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에 쉬 입을 떼 아는 체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명이 아닌 수인번호로 바뀐 이름 석자로 우리 역사에 새겨진 사람. 그는 시인이면서 명사수이자 치열한 특공 훈련까지 받은 무장투쟁가였다. 물론 반대측에 서있는 이들에게 그는 글쟁이의 가족으로 속내를 감춘 테러리스트였을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이자 일본에서까지 명성을 떨친 퇴계 이황의 후손이다. 그의 형제는 다섯이었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문학적으로 뛰어나 이름을 남긴 이가 넷째 원조다. 소설 <태백산맥>에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문학가로 등장하고, 그의 유고집을 냈던 이원조는 명랑하고 재기발랄했던 반면 그는 좀 엄숙하고 우직한 편이었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 유학 후, 1927년에 귀국한 그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날려 버리려던 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1년 7개월의 첫 옥고를 치른다. 하지만 그가 이 의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눈이 뒤집힌 일본 경찰이 그야말로 저인망으로 훑어서 감방에 처넣은 결과일 뿐, 재판에서도 나온 판결은 "혐의 없음"이었다. 그 뒤 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조선일보에 처음 시를 발표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는 '이활'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런데 광주학생운동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대구 격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또 옥살이를 한다.

264 수인번호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정설로 돼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역사를 도륙낸다는 뜻의 육사를 썼고 다음에는 "고기먹고 설사한다"라는 뜻의 육사를 썼다. 전자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그래봐야 별 수 없다'는 냉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한 친지가 "역사를 도륙낸다는 건 혁명의 뜻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이름을 써라"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육사로 스스로를 일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평탄케 하는' 노력에 몸을 던진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해방을 보지 못했다. 죽은 뒤에 발표된 그의 시 <광야>에서처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목놓아 불렀으나 그는 초인을 만나지 못했고 <청포도>에서처럼 하이얀 모시적삼 식탁에 올려 놓지 못했다. 1943년 조선에서 체포되어 거꾸로 중국으로 압송된 후 고문과 악형속에 1944년 1월 16일 짧지만 매서웠던 생명을 다한다. 1944년 오늘 이육사가 별이 되었다.